

젊은 예술가들 무형유산 공연 열린다

국립무형유산원, 국가유산청 출범 1주년 기념 16~18일 '다시락미디어 페스티벌'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국가유산청 출범 1주년을 기념해 16~18일 3일간 국립무형유산원 중정 야외무대에서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새로운 무형유산 공연 「다시락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시락미디어 페스티벌」의 '다시락'은 '다시, 잇다, 즐긴다, 아우르다'라는 의미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마음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16일과 17일 오후 7시에는 종묘 제례악, 남창가곡 등 전통음악을 전자음악으로 재해석하는 여성 2인조 '해파리(HAEPARY)', 거문고 등 국악기에 전자음악과 미디어 아트를 더해 실험적 예술을 선보이는 '무토(MUTO)', 전통 장단의 구조와 균형미를 토대로 전자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제작·연주하는 임용주 씨와 그룹 이남치의 베이스리스트 노디 씨가 한 팀을 이룬 '뿌레카(BBUREKA)'가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어 17일 오후 4시에는 전통연희 탈춤, 남사당놀이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이는 '현희집단 더(THE)광대'의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공연이, 18일 오후 3시에는 판소리 '흥보가'를 무용, 연극, 음악 등 현대적으로 풀어낸 '움직임팩토리'의 <친구 따라 제비간다> 공연이, 18일 오후 5시에는 전통국악을 재즈, 블루스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한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더튠(THE TUNE)'의 <늙은 노래의 좌표> 공연이 열린다.

부대행사로는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벼룩시장(플리마켓)이 열린다.

「다시락미디어 페스티벌」은 전 공연 무료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또는 전화(063-280-1500,1501)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유산청 출범 1주년을 기념해 16~18일 3일간 국립무형유산원 중정 야외무대에서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새로운 무형유산 공연 「다시락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현대적 해석과 기술 융합 등 무형유산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국민의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태권스테이 '무주산골영화제 연계 상품' 출시

태권도 여행 상품인 '태권스테이'가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하는 연계 상품을 포함하는 등 6월 상품을 출시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태권스테이'를 5월부터 운영 중으로 6월에는 현충일과 연이은 주말을 비롯해 매 주말 진행한다. 6월 6일부터 8일까지의 태권스테이는 '13회 무주산골영화제'와 연계한 기획 상품으로 운영한다. 참가 예약은 포털 사이트에서 '노는 법 - 특별한 로컬 여행'을 검색 후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 후 예약하면 된다.

무주산골영화제와 연계한 6일과 7일, 각 1박 2일 동안의 태권스테이에서는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태권도원과 지역 자율 관광

을 즐길 수 있고 특히 1일차 야간에는 산골영화제 상영작인 '로봇 드림'을 관람할 수 있다. '로봇 드림'은 전체 관람가로 다수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무성(無聲) 애니메이션이다. 2024년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 후보작에 올랐고 한국에서는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선정되며 장편 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태권스테이 참가 비용은 1인 6만 1천원으로 태권도 프로그램 참가와 도복 대여, 식사, 간식,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태권스테이 예약과 문의 사항은 전화(02-3661-0116)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씨네투어X산책’ 펼쳐진다

세병공원 · 전주시청 노송광장 · 덕진공원 · 풍남문 등서 무료 야외 상영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5월부터 9월까지 전주 시와 함께 '전주씨네투어X산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세병공원, 전주시청 노송광장, 덕진공원, 풍남문 등에서 관객들을 찾는다.

5월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5월 16일에는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수정공상 작품상을 받은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를, 5월 17일에는 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최신 애니메이션 영화 <플로우>를 세병공원에서 만날 수 있다. 5월 23일에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가, 5월 24일에는 1980년대 미국에 정착

한 이민자 가족의 여정을 담은 영화 <미나리>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상영된다.

5월 30일에는 꿈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가, 5월 31일에는 청춘의 성장을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 <수 분간의 음원을>이 덕진공원에서 상영되며 전주단오와 함께하는 더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국단편영화배급사네트워크가 추천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줄 풍성하고 즐거운 한국독립영화들이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여름의 풍남문에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별도의 예매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상영작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박물관, 초등생 인문학 창의 체험 운영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엄혁용)은 5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주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 창의 체험 프로그램인 '풍남문을 열고 전주성으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대표적 역사문화 유산인 풍남문과 박물관이 소장한 '전주부지도'를 활용해 초등 교과과정과 연계된 창의 체험형 수업으로 구성됐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풍남문의 역사적 의미와 전주성의 공간적 구성을 직접 탐색하며 교과서의 내용을 현장 중심으로 생생히 학습하게 된다.

또한 박물관 소장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시청각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역사 이해와 함께 문화적 감수성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우주의 빛꽃 선정화 빛꽃수행’ 명상수행 행사 18일 개최

명상수행 행사인 '우주의 빛꽃 선정화 빛꽃수행'이 오는 18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STB 삼생방송이 주최하고, 전북 지역 상생월드 힐링 선포포럼이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경전 종도사가 50년간의 수행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선정화'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선정화는 '우주의 대광명 한 송이 꽃'으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라고 한다. 이 꽃은 단순한 명상이나 정신적인 수련

을 넘어, 어둠과 고통을 극복하는 생명의 힘을 상징하며, 내면에서 피어나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준다고 한다.

안 종도사는 이번 행사에서 수행을 직접 전수하며, 참가자들에 이 빛꽃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명상을 넘어, 인간 내면의 깊은 깨달음과 변화를 추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 마을·운영단체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오는 30일까지 '2025년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마을 및 운영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지역의 마을 이야기와 문화를 기록하고, 이를 문화와 예술작품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마을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억 원 규모다.

참여 마을은 시·군 지자체를 통해 공모으로, 운영 단체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에 소재한 마을과 예술인을 활용한 문화집 발간 및 콘텐츠 제작 등 세부사업 기획이 가능한 도내 소재 문화예술 관련 법인 단체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는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